

손흥민, 다음시즌 EPL 득점왕 4위 예상



손흥민이 EPL 21호골을 넣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토트넘)이 2022~2023시즌에도 득점왕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매체 '더 풋볼 페이스풀'은

영 매체 득점왕 후보 5명 선정...1위 홀란드 예상 후보 4위에 살라·케인·호날두 포함

22일(한국시간) 2022~2023시즌 EPL 득점왕 유력 후보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시즌 23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은 득점왕 예상 4위에 올랐다.

'더 풋볼 페이스풀'은 손흥민에 대해 "지난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며 "해리 케인과 함께 엘리트 듀오로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단작 케인은 3위를 차지했고, 살라는 2위에 자리했다.

1위는 새롭게 맨체스터 시티 유니

폼을 입고 EPL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엘링 홀란드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출신 괴물 공격수 홀란드는 지난 시즌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다.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두 시즌 동안 27골(2020~2021시즌), 22골(2021~2022시즌)을 몰아쳤다.

맨시티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홀란드를 영입했다. 이적료는 홀란드의 바이아웃(이적 허용 최소 이적료) 금액인 7500만 유로(약 10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예상 후보 중 네 번째였다. /뉴시스



쿠팡플레이 "와우 회원, 손흥민 경기보러 오세요" 쿠팡플레이는 토트넘 울스터와 함께 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오직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만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22일 밝혔다. 토트넘과 함께하는 두 번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쿠팡플레이를 통해 라이브 중계할 예정이다. /쿠팡플레이 제공

김하성, 시즌 10번째 멀티히트...SD 연장 11회 끝내기 승

시즌 타율 0.230...호르헤 알파로 연장 11회말 끝내기 적시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7)이 시즌 10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파크

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3루수 겸 9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를 친 김하성은 시

즌 타율을 0.230으로 끌어 올렸다. 시즌 10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출루율은 0.317로 높아졌다. 또한 시즌 26타점째를 올렸다.

샌디에이고는 0-2로 끌려가던 3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등장한 김하성은 애리조나 선발 잭 깬런의 5구째 93.7마일(150.8km)짜리 한가운데로 불린 직구를 공략해 1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2루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후속 타선의 불발로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김하성은 5회 두 번째 타석에도 안타를 때려냈다.

그러나 이후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7회 삼진, 9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샌디에이고는 연장 11회말 호르헤 알파로 끝내기 적시타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2연승을 올린 샌디에이고는 시즌 43승 27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전남체육회 김민경 핀수영 짝핀 100m 한국신



전남체육회 핀수영 김민경이 한국 신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전남체육회는 김민경이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대회 짝핀 100m에서 42.28초의 기록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종전 짝핀 100m 한국신기록은 지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경현(해양경비안전본부)이 작성한 42.35초이며 김민경이 0.07초 앞당겼다. 또 김민경은 자신 최고기록인 42.38초를 0.1초 갱신했다.

김민경은 경기체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계영 400m에서 금메달과 짝핀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핀수영의 새별로 떠올랐다.

광양시·곡성군 불링...전국대회 5인조 우승

'제2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 남녀 우승컵



전남도체육회는 광양시청과 곡성군청 불링팀이 전북 전주 천일불링경기장과 라온불링장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각각 우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최복음·백종윤·백승민·박재훈·가수형으로 구성된 광양시청 불링팀은 남자부 경기에서 함께 4447점, 평균 2224 점으로 5인조전 우승을 차지했다.

최복음은 첫 경기에서 퍼펙트를 기록하며 우승에 기여했다. 또 최복음은 상위 10명이 출전하는 마스

터즈에서도 10경기 함께 2492점, 평균 249.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백승민도 함께 2291점, 평균 2291점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곡성군청 불링팀 이영승·하유림·김문정·장미나·김현미·김예솔 조는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 출전해 함께 4262점, 평균 213 점으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이중 이영승은 여자일반부 마스터즈에 출전해 10경기 함께 2292 점, 평균 229.2점으로 3위에 올랐다.

/박종배 기자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